

데스크탑보다 더 싼 노트북 과연 쓸만한가?

2005년 1월부터 노트북 시장에 돌풍이 불고 있다. 노트북하면 비싸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100만원도 채되지 않는 가격으로 승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대표적인 컴퓨터 제조업체인 삼보컴퓨터는 저가형 노트북 애버라텍 시리즈를 작년 11월부터 출시하면서 삼보컴퓨터의 전체 노트북 판매 대수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효자상품이 되었다. 일본의 저가형 노트북 판매업체인 소텍도 소텍코리아를 통해 4월부터 89만9천원짜리 노트북을 출시하면서 저가형 노트북 시장에 불을 붙이고 있다. 과연 이렇게 데스크탑과 큰 가격 차이가 없는 저가 노트북 쓸만한가?

실속형 저가 노트북이 뜨고 있다.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성능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당연히 같은 가격의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비교하면 데스크탑이 월등히 성능이 빠르다. 노트북은 휴대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이다. 휴대하기 쉽게 컴퓨터를 제작하다 보니 데스크탑에서 사용되는 부품보다 크기가 작고 절전이 가능한 부품을 사용한다. 그렇다 보니 성능은 같은 가격의 데스크탑보다 미흡하지만 휴대가 가능한 부품으로 노트북을 구성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노트북은 같은 가격의 데스크탑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능도 우수하고 휴대도 가능한 노트북은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펜티엄4 정도급의 노트북은 100만원 후반~200만원대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 정도의 성능과 비견할만한 데스크탑을 구입한다면 100만원대의 가격이면 충분하다. 그만큼 노트북은 데스크탑에 비해 비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런데 저가형 노트북의 등장과 함께 노트북 시장이 들쭉거리고 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사정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작년년부터 1000달러도 되지 않는 저가 노트북이 소개되고 있다.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에서는 699달러짜리 노트북을 출시했으며 일본에서도 고가형 브랜드인 소니에서 9만9천엔짜리 노트북을 올해 1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월마트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498달러짜리 노트북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에서 저가형 노트북의 등장이 가능하게 된 것은 원화질상과 함께 LCD 패널 그리고 각종 주요 부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것이다. 저가형 노트북의 등장은 노트북은 고가의 제품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사실 저가 노트북은 올해 처음 등장한 화두는 아니다. 이미 컴퓨터 판매가 부진했던 2000년부터 저가형 노트북은 선을 보여왔지만 사용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저가형 노트북은

성능이 한참 뒤떨어질 뿐 아니라 무겁고 크기가 커서 휴대하기 어려워 휴대할 수 없는 데스크탑의 단점과 성능이 떨어지는 노트북의 단점만을 가진 모자란 제품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저가형 노트북은 달라졌다.

저가형 노트북 인기 비결 이유있다.

저가형 노트북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격대 성능비가 우수하기 때문이다. 즉 ‘싼게 비지떡’이라는 속담과는 달리 저렴하면서도 성능과 기능, 확장성, 사용자 편의성 등이 모두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소텍코리아에서 판매하는 89만8천원짜리 노트북의 사양을 보면 인텔 셀러론M 310 CPU와 30GB 하드디스크, 256MB DDR 메모리, 14인치 LCD를 장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CD-RW와 DVD-ROM 드라이브를 사용 가능한 콤보드라이브와 무선랜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일본에서 들여온 이 제품은 출시 1주일만에 1000여대의 제품이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또한 삼보컴퓨터의 효자상품인 에버라텍 역시 작년말에 출시된 이후 약 2개월만에 1만5천대가 팔려나갔다. 2004년 삼보컴퓨터의 노트북 전체 판매대수가 4000대임을 비교해보면 사용자들이 저가형 노트북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삼보 노트북의 사양은 AMD 2800+ CPU와 256MB RAM, 15인치 LCD, 60GB 하드디스크를 내장하면서 콤보드라이브와 무선랜, TV OUT 포트, IEEE1394, SPDIF 출력, 메모리드라이브 등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확장성도 우수하다. 이렇게 성능과 기능이 크게 부족함이 없다보니 저가형 노트북에 대해 많은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저가형 노트북이 무조건 만족할만하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가 노트북은 크기와 무게가 다소 휴대하기 불편할 수 있다. 삼보 저가형 노트북의 경우만 해도 노트북 무게가 3kg 정도인데다가 33x27cm 정도로 여성들이 들고다니기엔 다소 버거울 수 있다. 게다가 저가형 노트북은 그래픽 출력 기능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3D 게임이나 그래픽 프로그램을 구동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가형 노트북이 애용되는 이유는 쓸만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서핑과 워드프로세서, 프리젠테이션 등의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 더할 나위없다. 그렇다보니 굳이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간을 덜 차지하고 휴대할 수도 있는 저가형 노트북을 사무용 PC로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노트북 시장이 저가형만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다. 멀티미디어와 보안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플랫폼인 소노마를 채택한 고가형 노트북도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노마 노트북은 180만원 이상의 고가형 노트북으로 그래픽 성능과 멀티태스킹 작업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